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나는 행복하다' 고 매일 말하라

학승이 물었다.  
"가난한 사람이 왔습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난하지 않아."  
학승이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노스님께 무엇을 동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 가난을 계속 지키고 있으라."

"무변신보살이 어찌하여 여래의 정상을 볼 수 없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얕은 비단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과 같다."

問 無邊身菩薩 爲什麼不見如來頂相 師云 如隔羅縠

여래의 정상은 여래의 '최고의 경지'를 비유한 말이다. 부처님의 도는 누구도 간파할 수 없다. 부처의 경지 바로 아랫 단계인 보살도 부처님의 도의 깊이를 다 파악하지 못한다. 보살이라 해도 얕은 장막 정도의 차이는 아직 있기 때문이다.

보살은 1세기경 대승불교의 주역으로서 크게 활동한 수행자들이지만, 경전 속 보살들은 부처님의 만년에 왕성하게 활동하던 보살로 보는 것이 좋다. 보살은 보디사트바(bodhisatva)이고 보다는 지혜, 샷트바는 수행자라는 뜻이다. 따라서 보디사트바는 '지혜로운 대수행자'이다. 이 보디사트바를 줄여서 '보살'이나 '보살'이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이들 보살은 모두 머리를 기르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양반가의 모자를 썼던 대장자, 대부호들로서 세속 수행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들 세속인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도를 깨달아 중생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법을 동시에 전파했던 사람들이다. 나중에 이들은 부처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존경을 받았는데, 법당에 삼존불 중에 좌우 보살로 모시기도 했다. 이것은 출가와 재가를 가리지 않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이고, 그

가 세속인이래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모든 천상계의 감로는 누가 마실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져다 주어 고마우이."

問 諸天甘露什麼人得喫 師云 謝你將來

천상의 감로는 '단 이슬'이다. 이 감로를 마시면 몸과 마음이 쾌락하게 된다. 병은 나고 즐거움은 배가된다. 마시고 난후 오랫동안 입안에서 향기가 돈다. 이 천상의 감로를 누가 감히 마실 수 있는가? 그것은 조주 선사와 같은 스승들이나 마실 수 있다. 스승은 중생이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강의한다. 그런 스승은 천상의 감로를 받아 먹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걸사(乞士)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출가한 것이 마치 무슨 권력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부린대거나, 삼보의 정체가 마치 자기의 재(財)인 것으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쓰고 다니면서, 배에 기름이 끼는 좋은 음식만 먹고 있으면서, 천상의 감로까지 먹으려한다면 적반하장이다. 그런 사람에게 감로는 영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감로가 입에 들어가는 순간 입안은 타들어가고 내장까지 뒤틀리고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일어나므로 절대 마실 수 없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③



## 그대 출다여! 조금도 후회할 것 없소 <대반열반경>

얼마 전 TV에서 들은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왕따'를 당해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1년에 150명에 이른다고 한다.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꿈을 꽃피워 보기도 전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해버리는 인연 수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일까. 그런 줄 알면서도 어떠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

미안하게도 나를 포함한 많은 어른들은 그저 바람결에 들리는 풍문 정도로만 이 문제를 생각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얼마 전 대구의 A군이 죽으면서 쓴 유서는, 그 유서 속에 담긴 어린 소년의 어린 마음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

집단 따돌림은 언제 어디서나 있는 일인지 모른다. 인간들의 세상살이가 원래 그런 것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문제인 것은 그러한 현상에 대한 연민의 정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점이다. 미리미리 알아서 챙겨주고, 돌봐주고, 살피려고 하는 배려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이 더욱 슬픈 일이 아닌가. 더욱이 학교에서 늘 지켜보는 선생님들의 '솔직한' 용기가 그리워진다. 또래 집단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기 보다는, 우리 반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 말이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스승의 배려를 이구속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된다. 얼마 안 있어서 열반에 드실 부처님께도 염려스런 점이 없지 않았다. 바로 부처님 열반 이후 후시라도 출다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질지 몰라서이다. 다른 대중들이 한 목소리로 출다를 비난할 것을 부처님께서는 염려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대 출다여! 여래께서 그대가 올린 공양을 마지막으로 입멸하셨다는 것은 너에게는 이익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출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바로 그 점을 부처님께서 걱정하고 있다.

그러하여 가까이 시봉하고 있는 아난다를 불러서 부탁을 하신다. "아난다여! 그로 말미암아 대장장이 아들 출다가 나에게 최후로 공양한 것을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난다여! 너는 이렇게 말하여 대장장이 아들 출다를 위로하여라." 아난이 전하는 부처님의 위로, 그 첫마디는 바로 "그

대 출다여! 조금도 후회할 것 없소이다."였다.

스스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해서 성의를 다하였건만, 내용물에 문제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마음이 불편한 출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일까.

출다에 대한 부처님의 배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슬픔에 대한 공감력(共感力)이다. 후시라도 있을지 모르, 출다의 슬픔에 대하여 미리 아파하고 안타까워 하는 마음이다. 이를 우리는 흔히 자비라고 말하거나, 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고



부처님, 최후까지 출다 배려  
미리 일어날 상대 슬픔도 생각  
자비·비감력을 길러주어야  
왕따 문제도 해결

싶다. 비감력(悲感力)! 슬픔을 느끼는 힘, 아픔을 느끼는 힘 말이다. 이 힘을 우리는 상실해 버린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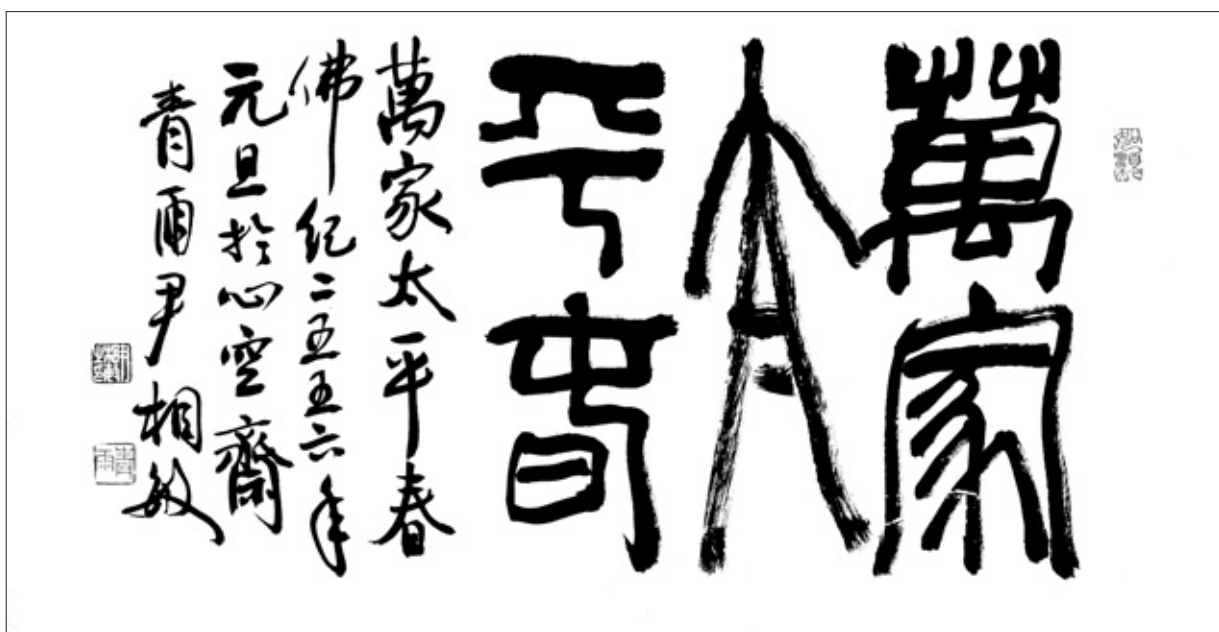
대구 A군 사건 이래로 연일 언론에서는 이른바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규범을 확립하고, 선악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비감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친구는 이렇게 아파할 것이다. 이렇게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울 것이다. 이렇게 힘들어 할 것이다. 이렇게 죽어갈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고, 미리 느끼는 힘을 심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함께, 미리, 슬퍼할 줄 아는 힘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 부처님 같은 스승이 그 립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 운상민의 서화산책 만가태평춘

## 은 세상이 태평한 봄이로다



萬家太平春(만가태평춘)  
은 세상이 태평한 봄이로다

太: 클 태  
平: 평평할 평  
春: 봄 춘  
旦: 아침 단  
齋: 재계할 재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인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인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대한통일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정벽암**

귀의 삼보하옵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펼쳐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큰 서원으로 참된 교육을 통한 정법 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심을 모아 함께 정진하십시오. 법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개인사망의 자산과 관리는 일체 주지 권한이며, 총무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

- 입증서류 입증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도교육 종도 강원교육, 집체교육, 사미기본교육, 통신강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아함경, 방등경,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외 천수경, 반야경, 금강경오가해, 유식삼십송, 선문철요, 정도삼부경, 원시불교, 부파불교, 불교계론, 기타 등등)
- 총본산 :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 전화 055)391-3014(선원장실), 3004.3024(종무소) 팩스 055)391-3016